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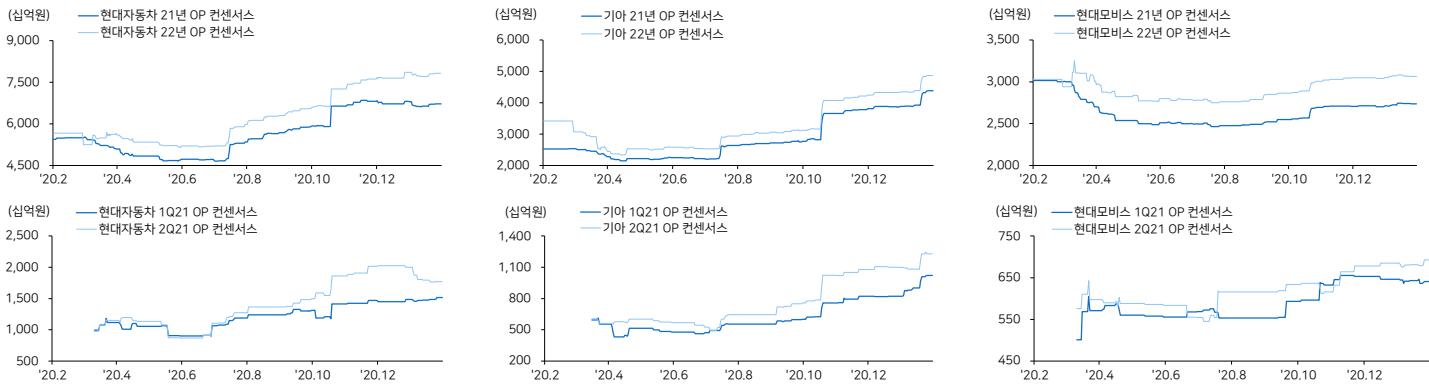
Daily Auto Check 2021. 2. 23(Tue)

meritz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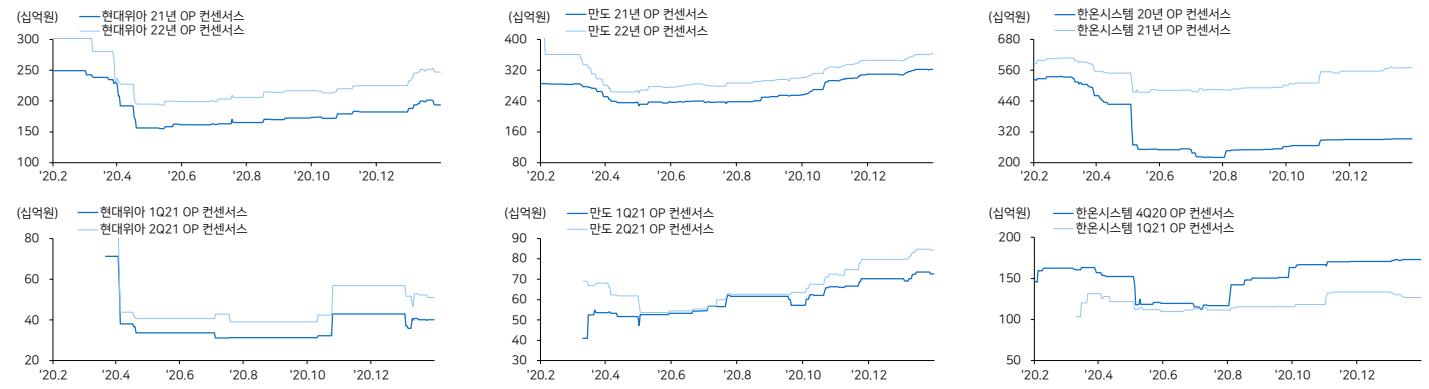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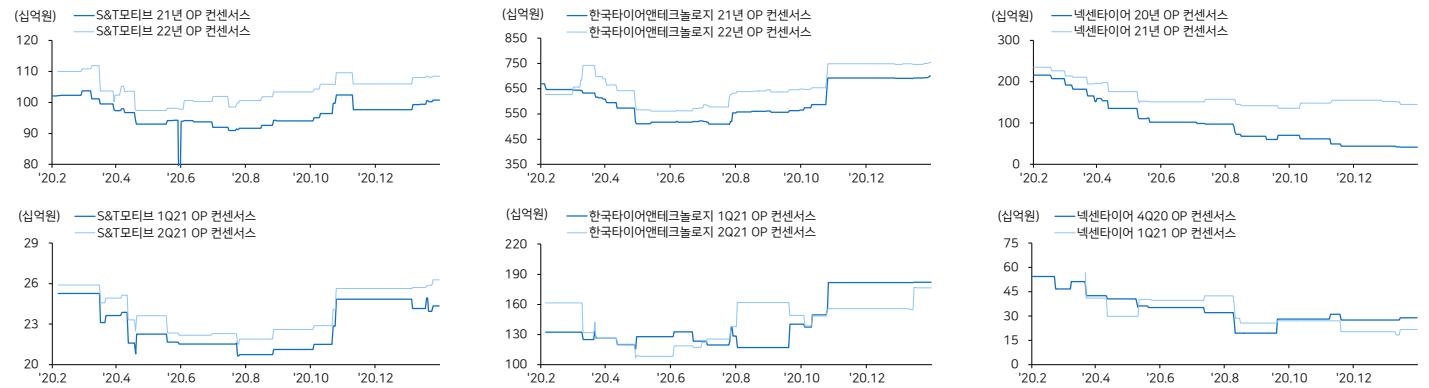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테슬라, 국내시장 전기차 생활전…가격경쟁 예고 (NEWSIS)

테슬라가 먼저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기 위해 '모델3' 연식 변경 모델과 '모델Y'의 가격을 낮춘 가운데, 현대차는 아이오닉5의 시작가격을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6,000만원 미만으로 설정하고, 선택사양을 다양화할 것으로 추정.

<https://bit.ly/2NvBbPh>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금물살 타나 (e대한경제)

변창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 진출이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현대·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 금물살을 탈 전망.

<https://bit.ly/3aKVBNC>

르노삼성·쌍용·한국GM…政 친환경차 확대에 '비상동'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환경부제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GM 등 국내 중견 완성차 3사에 비상동이 켜졌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비중을 대폭 늘리야 하지만 아직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차량 라인업이 꾸려져 있어 때문이다.

<https://bit.ly/3pHmd5F>

코로나에도 꽉꽉차다! 중국 자동차 판매량 세계 1위 (연합뉴스)

22일 중국국제라인오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급락한 가운데 중국은 약 2,500만 대를 팔아 세계 1위 판매량을 기록함.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은 32%를 차지.

<https://bit.ly/2NK0Bqp>

현대차, 인도 SUV 라인업 확대... "디젤시장 적극 공략" (헤럴드경제)

현대차 인도법인이 SUV 라인업을 확장, 7인승 MPV 모델을 출시하고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 수요에 따른 판매 전략도 강화할 것으로 밝혔다. SUV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인도에서 라인업을 더 확대할 계획.

<https://bit.ly/2MeRVCv>

제네시스 구독 업그레이드... 가격대 넓히고 G90도 투입 (서울경제)

제네시스 구독 서비스인 제네시스 차종을 편리하게 빌려 탈 수 있는 '차량 구독' 서비스인 제네시스 스펙트럼의 사용 모델과 가격대를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단일 차종 구독을 신규 도입했으며, 신규 SUV GV70도 도입할 예정.

<https://bit.ly/3saCTVO>

베트남서 생산된 기아차, 태국·미얀마로 수출... 한국은 부품 역수입 (아시아타임즈)

베트남의 기아차 제조업체 타코그룹이 아세안(ASEAN) 수출을 확대 중. 타코그룹은 한국에서 생산된 기아차와 비교해 베트남산 기아차는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아세안 시장에서의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함.

<https://bit.ly/3sfMEBi>

샤오미 '중국의 테슬라' 되나... 전기차 진출 사실상 인정 (UPI뉴스)

샤오미그룹은 21일 저녁 공시를 통해 '최근 그룹의 전기차 제조 산업 진출에 관한 보도를 확인했다'며 "샤오미는 그간 전기차 생산능력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bit.ly/22E4hhl>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압박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